

DOI : 10.22859/bojoss.2023..65.010

보조사상 제65집(2023.03), p.281-309

스리랑카 탈팻(Talpat) 전통과 필사본 연구(1) - Dīpavaṃsa Catalog와 Colophon을 중심으로 -

레브파고다사라나시하*

김 경 래**

목 차

- I. 서론
- II. 콜롬보 국립박물관 도서관 목록집
 - 1. Colombo National Museum Library Catalog
 - 2. Catalog: Manuscript no.1849; 1850; 1851
- III. 스리랑카 필사본 목록집
 - 1. Palm leaf Manuscripts catalog of Sri Lanka
 - 2. Colophon: Manuscript no.435; 512; 665
- IV. 결론

* 주저자,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박사과정, pagodasarana1985@gmail.com

** 교신저자,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조교수, wizkyung@dongguk.edu

국문초록

불교국가들 사이에서 패엽경 필사전통은 기원전부터 이미 정착되어 있었다. 특히 스리랑카에서는 패엽경의 잎사귀를 뜻하는 ‘탈팻(Talpat)’이라는 이름으로 이 전통이 계승 발전되어왔다. 수세기를 걸쳐 제작되어온 이 필사본들은 콜롬보 국립박물관 도서관(Colombo National Museum Library) 혹은 스리랑카 전역의 사원들에서 개별적으로 보존 전승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는 소실되거나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본 논문은 이제까지 국내 학계에서 제대로 다루어진 바 없는 스리랑카 탈팻 전통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사본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대표적인 목록집들을 검토하여 목록 해석방법 및 필사본 현황을 검토하고, 더 나아가 열람 가능한 특정 텍스트를 표본으로 삼아 구체적인 필사본의 내부구조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논자가 사례연구로 선택한 텍스트는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불교 역사서 『디빠왕사(Dipavamsa)』이다. 이 텍스트는 1879년 올덴베르크(Hermann Oldenberg)에 의해 출판되었는데, 당시 그는 버마문자와 싱할리문자로 필사된 11개의 필사본들을 바탕으로 교정판을 완성했다. 그러나 이후 올덴베르크가 검토하지 못했던 다수의 필사본들이 추가로 발견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비교연구 작업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논자는 스리랑카 콜롬보 국립박물관 도서관과 일부 사원에 소장된 필사본들 중 현재 열람 가능한 7개의 판본(National Museum Library Catalog no.1849, 1850, 1851; Somadasa Catalog no.365, 435, 512, 665)을 분석하여 탈팻 전통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 주제어

탈팻(Talpat), 『디빠왕사(Dipavamsa)』, 필사본, 패엽경, 콜로폰(Colophon)

1. 서론

탈팻(Talpat)이라 불리는 스리랑카 패엽경(Palm-leaf Manuscript, Puskola pota) 필사전통의 정확한 기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BCE 89-77년 사이에 필사된 삼장이 발견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미 기원 전부터 이 전통은 확립되어 있었던 것 같다. ‘탈팻’이란 원래 패엽경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잎사귀를 지칭했는데, 점차 불전 필사전통을 통칭하는 광범위한 용어로 확장 된다. 탈팻은 현대적인 출판방식이 도입되기 이전인 1737년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으며, 현재까지도 스리랑카 일부 사원들을 통해 여전히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¹⁾

본 연구의 목적은 세 가지이다. 첫째, 국내 학계에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스리랑카 탈팻 전통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는 이제까지 등한시 되어 왔던 테라와다 전통 내 필사본 연구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것이다. 둘째, 탈팻 전통에서 제작된 패엽경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논자는 『디빠왕사(Dīpavaṃsa, 이하 Dpv)』 필사본들을 열람하여 패엽경의 구체적인 구조와 특징을 확인할 것이다. 셋째, 목록집 카탈로그에 담긴 정보들을 분석할 것이다. 카탈로그는 일반 연구자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약호와 기호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이 안에 담긴 중요한 정보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논자는 탈팻 전통의 소개와 더불어 목록집을 활용하는 매뉴얼 또한 제공하고자 한다.

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논자가 Dpv를 탈팻 전통의 연구사례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간단히 밝히고자 한다. Dpv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불교 역사서로서 조지 터너(George Turnour)에 의해 유럽학계에 처음 소개된 바 있으나 터너의 역사관 및 자료상의 한계로 인해 다수의 오류가 발

1) Documentation Services Division(2007) p.V.

견되었다. 이를 수정하기 위해 올덴베르그(Hermann Oldenberg)는 빠알리 성전협회(Pāli Text Society)의 지원을 받아 Dpv 개정판을 1879년에 출판했다. 올덴베르그의 개정판은 현재까지도 Dpv 연구를 위한 교과서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다양한 필사본들을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없었기에 올덴베르그는 11개의 필사본들만을 참고하여 교정 및 편집 작업을 완성했다.

올덴베르그가 사용했던 필사본은 버마문자와 싱할리문자로 나뉜다. 먼저 그는 버마문자 필사본을 F와 N이라는 약호로 표기했는데, 이 중 F는 프라이어 소령(Major Fryer)이 소장하고 있던 필사본으로 1828년에 필사된 것이다. 이는 6장87송부터 15장 91송까지가 소실되었으나, 대신 다른 연대기인 『투빠왕사(Thūpavaṃsa)』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올덴베르그가 N으로 약칭한 필사본은 버마의 왕이 콜롬보 콜로니얼 도서관(Colonial Library in Colombo)에 기증한 것이다. 이 필사본은 아라놀리스(G.W.D. Aranolis)가 리즈 데이빗(Thomas William Rhys Davids)을 위해 제작한 것으로, 대부분 로마나이즈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싱할리 문자도 중간에 삽입되었다.²⁾

올덴베르그가 사용했던 싱할리 필사본은 총 9개였다. G라고 불린 필사본은 파리 국립 도서관 소장본(Paris Natinoal Library)으로, 싱할리 문자로 필사되었지만 내용은 버마 필사본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필사본 A는 식민지 인도정부 사무실(India Office) 소장본을 지칭한다. B와 C는 다달레 위하라(Dadalle Wihāre) 사원에서 리즈 데이빗을 위해 제작한 필사본들로 현재 케임브리지 도서관(Cambridge University Library)에 소장되어 있다. M은 앞서 버마문자 필사본 N과 마찬가지로 아라놀리스가 리즈 데이빗을 위해 만든 필사본이다. 이는 종이에 필사되어 있으며 현재 케임브리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R 역시 케임브리지 도서관에 보존된 필사본으로, II 단원에서 살펴볼 제임스 드 알르위스(James De Alwis)의 소

2) Oldenberg(1879) p.10.

장본을 복사한 것이다. D는 칠더스 부인(Mrs. Childers, Anna Mary Henrietta Barton)의 소장본으로, 그녀가 자신의 남편인 로버트 칠더스(Robert Caesar Childers)를 위해 만든 필사본이다. E는 파리 국립 도서관 소장본이며 S는 수부띠(Subhūti) 스님이 올덴베르그에게 선물한 것으로 종이에 연필로 필사되어 있다고 한다.³⁾

올덴베르그에 따르면, F와 N이 상대적으로 먼저 제작된 것이며, CDEMRS은 후대 필사자들에 의해 다양한 수정과 변화를 거친 것이다. 그리고 그가 사용했던 모든 필사본들은 버마문자로 제작된 원천자료를 저본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이 원천자료는 1812년에 시암(Siam)에서 스리랑카로 반입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올덴베르그가 참고했던 필사본들은 물론, 그가 출판한 교정본에도 크고 작은 오류를 양산했을 가능성이 높다.⁴⁾ 다시 말해, 올덴베르그의 Dpv 교정본은 단지 하나의 필사본에서 이루어진 극히 제한적인 연구성과였던 것이다.⁵⁾

여기서 주목할 점은, 스리랑카의 필사본들을 가장 잘 정리했다고 평가받는 실바(W.A. De Silva)의 목록집(1938년 출판)과 소마다사(K.D. Somadasa)의 목록집(1959년부터 1987년에 걸쳐 3권으로 출판)이 모두 올덴베르그의 Dpv 교정본(1879년 출판)보다 이후에 출판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올덴베르그가 참고했다고 밝힌 11개의 필사본들과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판본들이 후대에 추가로 발견되었을 가능성, 더 나아가 본 논문에서 소개할 필사본들이 올덴베르그의 Dpv에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완성도가 낮다고 평가되어온 Dpv의 텍스트적 가치를 재고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향후 Dpv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3) Oldenberg(1879) pp.10-11.

4) Oldenberg(1879) pp.11-12.

5) 실제로 올덴베르그의 편집본으로 인해 Dpv는 학자들에게 불완전한 텍스트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주요연구 대상에서도 제외되게 된다. Dpv를 불완전한 텍스트로 규정한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 라모뜨(E. Lamotte)였다. 그는 그의 대표적인 저서 『인도불교사』를 통해 제3차 결집에 대한 Dpv의 역사가 왜곡되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라모뜨(2008) p.529.

열어줄 수 있는 필사본 정보들을 제공할 것이다. 이상의 문제의 의식을 바탕으로 논자는 탈팻 전통의 중요성과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텍스트로 Dpv를 선택했다.

II. 콜롬보 국립박물관 도서관 목록집

I. Colombo National Museum Library Catalog

스리랑카에서 제작된 필사본들은 도서관 혹은 사원이나 개인소장 및 해외 유출본을 포함하여 약 75,000개 정도였다고 한다.⁶⁾ 이러한 방대한 양의 필사본들 중 일부를 소장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은 콜롬보 국립박물관 도서관(Colombo National Museum Library)이다. 이 도서관은 1877년에 건립되었는데, 당시 정부관할 고도서관 등에 보관되어 있던 필사본 5,000개 이상이 이곳으로 이전되었다. 이후 패엽경 전문연구가들이 이 필사본들을 연구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연구결과를 목록집으로 출판했다. 이들을 출판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 (1) A descriptive Catalogue of Sanskrit, Pāli and Sinhalese literary works in Ceylon (by James De Alwis, 1870)
- (2) List of Pāli ,Sinhalese and Sanskrit Manuscripts in the Colombo Museum (by Rhys Davids, 1882)
- (3) Catalogue of Pāli ,Sinhalese and Sanskrit manuscripts in the temple libraries of Ceylon (by Louis de Zoisa, 1885)

6) Fernando(1982) pp.146-157.

- (4) Catalogue of the Colombo museum Library list of Pāli ,Sinhalese and Sanskrit Manuscripts (by Mr. Simon .F. Goonawaradana,1894)
- (5) Catalogue of Pāli ,Sinhalese and Sanskrit Manuscripts in the Colombo Museum (by Henri M. Gunawarana ,1901)
- (6) Catalogue of Palm leaf Manuscripts in the Library of the Colombo Museum Vol.I (by W.A. De Silva,1938)
- (7) An annotated Bibliography of Palm Leaf Manuscripts in the Library of the Colombo National Museum (By Nilantha Indika Hettige,2010)

이들 중 구나바라나의 1901년 목록집은 현재 외부인에게 공개 되지 않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출판된 2010년 목록집은 기존의 목록들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필사본들을 추가한 목록집이다.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 목록집에는 모두 Dpv가 언급되어 있다.

현재 Dpv를 언급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목록집은 1870년에 제작된 제임스 드 알르위스(James de Alwis)의 *A Descriptive Catalogue of Sanskrit, Pāli and Sinhalese Literary Works in Ceylon*이다. 당시 학계에서는 스리랑카 패엽경의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었고, 다량의 필사본들을 정리 및 분석하는 작업을 담당할 책임자로서 알르위스가 선정되었다.⁷⁾ 그는 자신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하여 총 3권의 목록집을 제작했는데, 현재는 제1권만 남아있다. 이 목록에 언급된 필사본들은 아래와 같다:

Abhidhānapadīpikā, Attanagaluvam̐sa, Kaccāyana Pāli

7) 알르위스는 필사본을 보존하고 연구하기에 스리랑카보다는 영국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필사본들을 영국으로 보내기도 했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다수의 스리랑카 필사본들이 해외로 유출되었다. Alwis(1870) pp.XI-XIV (Introduction).

Grammar, Nettippakaraṇa, Balāvatara, Gaḍāladeni-Sanna
a, Dhātu-Manjusā, Namāvaliya, Mahāvansa, Dipavansa,
Anuruddha śataka, Bauddha Śataka, Sinahalese Sanna, V
rṭta Mālākhyā, Vṛtta Ratnākara Pañchika, Rūpasiddhi, Mo
ggallāna Vyākaraṇa, Vuttodaya Jānakiharaṇa, Kāvyaśeka
ra, Selalihini Sandesa, Parevi Sandesa, Sidat Sangaran

알르위스는 각 패엽경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내용 및 서지사항 들을 자세히 기술했다. 그는 Dpv 필사본에 대해서도 50 페이지 가량의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는데, 여기에는 필사본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 1 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요약 또한 포함되어 있다.

Dpv를 언급하고 있는 두 번째 목록집은 리즈 데이빗(T.W. Rhys Davids)이 제작한 목록이다. *Journal of the Pali Text Society*를 통해 출판된 이 목록집은 아래와 같은 6개의 카테고리 174개의 필사본들을 정리하고 있다.⁸⁾

- (1) 니까야와 아비담마를 포함한 삼장문헌 (27개)
- (2) 주석서 (71개)
- (3) 역사 및 신화 내러티브 (25개)
- (4) 철학서 (29개)
- (5) 시 (16개)
- (6) 기타 과학 및 의학서 (6개)

리즈 데이빗은 Dpv를 세 번째 카테고리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앞서 알르위스의 목록과 달리 여기서는 Dpv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리즈 데이빗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Dīpa Vaṅsa'라는 제목을 지닌 서로 다른 두 가지 판본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싱할리 문자로

8) Rhys Davids(1882) pp.46-58.

필사되어 있다는 것뿐이다.

세 번째 목록집은 1885년에 제작된 목록집 *Catalogue of Pāli, Sinhalese and Sanskrit manuscripts in the temple libraries of Ceylon*이다. 이 목록집의 원본은 1882년에 제작된 루이 드 조이사(Louis De Zoysa)의 목록집인 *Catalogue of Pāli, Sinhalese and Sanskrit manuscripts in the Ceylon Government oriental Library*이다.⁹⁾ 조이사는 남아시아 문화에 정통했던 번역가였으며, 이미 산스크리트 필사본 목록을 제작했던 필사본 전문가이기도 했다. 그는 스리랑카 사원에 소장되어 있는 빠알리 와 싱할리 필사본들의 중요성을 스리랑카 정부에 적극적으로 알렸고, 1882년에 자신의 연구성과를 목록집으로 출판했다. 그러나 이 목록집은 현재 소실되었고, 대신 그가 1885년에 다시 제작한 목록집이 현재 남아있다. 조이사가 기록한 Dpv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제목: Dīpavaṃsa

크기¹⁰⁾: 탈팻 30장, 길이 21인치, 페이지 당 9-10줄 필사

저자: 미상

원전: 정확한 제작시기 미상. 마하세나(Mahāseṇa) 통치기 CE 275-320년. 올덴베르그에 따르면 CE 4세기 초반부터 5세기 중후반부에 저술되었음.

주제: BCE 543-CE 302년 사이의 스리랑카 역사

특징: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빠알리 운문으로 제작. 올덴베르그가 1879년 번역 출판.

그러나 위에 언급된 Dpv의 정보는 현재 콜롬보 국립박물관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필사본과 일치하지 않는다. 조이사가 언급한 필사본은 다른

9) Zoysa(1885) p.17.

10) 논자가 '크기'로 번역한 단어는 folium의 복수형태인 folia이다. 이는 폐엽경의 물질적인 크기 및 양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인데, 여기서는 편의상 '크기'로 번역했다.

곳에 보관되어 있거나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¹¹⁾

네 번째 목록집은 구나와르다나(Simon F. Gunawaradana)가 출판한 *Catalogue of the Colombo museum Library list of Pali, Sinhalese and Sanskrit Manuscripts*이다. 콜롬보 박물관 소장본을 정리한 목록집들 중에는 특정인이 의뢰하여 제작된 목록집도 다수 있다. 구나와르다나의 목록집은 총 5페이지로 구성된 소목록집으로서, 콜롬보 국립박물관 도서관의 책임자였던 제라드 조셉(Gerard A. Joseph)이 당시 실무자였던 구나와르다나에게 목록집을 의뢰하여 제작된 것이다. 이 목록집 두 번째 페이지에 Dpv가 간략히 언급되어 있다.¹²⁾

다섯 번째 목록집은 실바(W. A. De Silva)의 *Catalogue of Palm Leaf Manuscripts in the Library of the Colombo Museum Vol.I*이다. 콜롬보 국립박물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필사본들을 가장 잘 정리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 목록집은 총 2,362개의 폐엽경을 분석하고 있으며 일부 중요한 필사본들의 경우 사진 복사로 남겨두었음은 물론, 각 필사본들의 정보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¹³⁾ 이 목록집은 다음과 같은 현대식 카테고리 필사본들을 배열 정리하고 있다.

- (1) 테라와다 불교문헌 (싱할리 필사본)
- (2) 테라와다 불교문헌 (버미즈와 캄보디아본)
- (3) 역사와 전통
- (4) 문법과 사전
- (5) 운율학과 시
- (6) 예술
- (7) 의학
- (8) 천문학과 점성술
- (9) 귀신 및 악마

11) Hettige(2010) p.XVII.

12) Gunawaradana(1894) Introduction.

13) Lanerolle(1938) pp.269-270; Codrington(1941) p.74.

Dpv는 세 번째 카테고리인 ‘역사와 전통’에 포함되어 있으며, 총 세 개의 다른 판본들이 각각 1849, 1850, 1851로 넘버링 되어 있다. 논자가 콜롬보 국립박물관 도서관을 통해 열람 허가를 받은 것 역시 이들 세 가지 판본이다.

2. Catalog: Manuscript no.1849; 1850; 1851

실바 목록집의 카탈로그에 수록된 1849번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1849
Talpat, Foll 33 (ᄃ-ᄃ), 22 in. by 2½ in., 8 lines, 19¼ in. long on a page. Letters well formed, small, 7 to an inch. Pāli verse.
History of Ceylon in Pāli verse from B.C. 543 to 302 A.C. compiled at the Maha Vihāra, Anuradhapura.

카탈로그에는 가장 먼저 필사본 고유번호가 언급되어 있고, 이어서 Talipat이란 표기가 나온다. 이는 당시 유럽인들이 싱할리 Talpat을 영어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생긴 변형으로 추정된다. 앞서 언급했듯, ‘탈팻 (Talpat)’이란 스리랑카에서 폐엽경을 필사할 때 사용되는 나뭇잎을 지칭한다. 따라서 이 표기는 1849번이 종이가 아닌 탈팻에 필사되어 있는 폐엽경을 의미한다.

Foll 33이란 전체분량을 서술하는 표기법이다. Foll은 양면에 텍스트가 필사된 탈팻 한 장을 지칭하는데, 이를 폴리오(folio)라 부른다. Foll 33은 이러한 폴리오가 총 33장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괄호 안의 싱할리 문자 ‘ᄃ ᄃ’는 각각 K와 G를 지칭하며, 33장의 폴리오를 싱할리 문자로 K에서부터 G로 모음을 조합하여 매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마치 페이지를 아라비아 숫자 대신 가나다순으로 매긴 것과 같다.

‘22 in. by 2½ in.’란 폴리오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로 22인치,

세로 2½인치를 뜻한다. ‘8 lines, 19¼ in. long on a page’란 폴리오 한 장에 총 8줄로 필사가 되어 있으며, 한 페이지에 필사된 길이는 19¼인치임을 의미한다.

Letters well formed는 필사상태를 의미하는데, 이 경우 필사가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small, 7 to an inch.란 필사된 글씨의 크기를 뜻하며 1인치당 글자가 7개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Pāli verse란, 필사는 싱할리 문자로 되어 있지만 언어는 빠알리이고, 텍스트가 산문이 아닌 운문 계송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1849번의 카탈로그의 약호와 표기법은 여타의 탈팻 카탈로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850과 1851의 카탈로그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850

Talipat, Foll 48 (1-48), 18 in. by 2 in., 7 lines, 15¾ in. long on a page. Letters well formed, small, 7 to an inch. Pāli verse.

1850번 역시 마찬가지로 탈팻에 필사되었으며 총 48장의 폴리오로 구성되어 있다. 흥미로운 점은 앞서 1849번과 달리 페이지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1-48)되어 있다. 폴리오의 크기는 가로 18인치 세로 2인치이며, 각 폴리오 당 7줄이 필사되어 있고 필사된 길이는 15¾인치이다. 필사상태는 양호하며 글자 크기는 작아서 1인치 당 7글자가 필사되어 있다. 필사된 문자는 싱할리이지만 언어는 빠알리이고 텍스트는 운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851

Talipat, Foll 45, 20½ in. by 3 in., 10 lines, 16 in. long on a page. Letters well formed, medium, 6 to an inch. Pāli verse. Burmese character. See No.1849. MS. presented by the King of Burma

1851번 또한 껍데기이며, 폴리오 4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폴리오 크기는 가로 20인치 세로 3인치이며, 폴리오마다 10줄이 필사되어있고, 길이는 16인치이다. 필사상태는 양호하며 글자 크기는 중간 사이즈로 1인치 당 6글자가 필사되어 있다. 이전의 1849와 1850과 달리 버마문자로 필사되었지만 언어와 텍스트는 마찬가지로 빠알리 운문이다. 이 필사본은 버마의 왕이 선물했다는 점에서 이전 판본들과 차별화 된다.

이상 콜롬보 국립박물관 도서관 목록을 통해 카탈로그의 약호표기와 해석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카탈로그는 텍스트의 내용보다는 물질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필사본이 훼손 및 소실되거나 바뀐 것인지의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III. 스리랑카 필사본 목록집

I. Palm Leaf Manuscripts Catalog of Sri Lanka

소마다사(K.D. Somadasa)는 1959년부터 1987년까지 스리랑카의 모든 필사본들을 총망라하는 기념비적인 목록집 『스리랑카 필사본 목록집 (Palm Leaf Manuscripts Catalog of Sri Lanka)』을 출판했다.¹⁴⁾ 이 목록집은 3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스리랑카에서 제작된 필사본들 중 70%에 해당하는 51,551개의 필사본들을 소개하고 있다.

소마다사 목록집 제1권에는 스리랑카 13개 지역의 913개 사원들이 소장하고 있는 44,329개의 필사본이 정리되어 있다. 이 목록집은 필사본들이 소장되어 있던 사원의 명칭과 주소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¹⁵⁾

14) Somadasa(1959): Somadasa(1964): Somadasa(1987).

15) Somadasa(1959) pp.117-150.

기존 목록집들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소마다사 목록만의 이러한 특징은 지역에 따른 탈팻 전통 간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사본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다.

소마다사는 이 목록집을 출판하기 이전인 1955년 스리랑카 남부지역 사원들에 소장된 필사본 목록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개인적인 인맥을 동원하여 사원 내부에서 전승되던 필사본 목록집 250부를 확보했고, 이를 알파벳 순서로 재구성했다. 이 소식을 들은 스리랑카 불교 위원회(Ceylon Buddhist Board)는 스리랑카 전 지역을 아우르는 대규모 목록 편집 작업을 소마다사에게 의뢰했다. 당시 스리랑카 전역의 다양한 사원들이 소마다사에게 보내준 필사본 목록 원본은 현재 페라데니아 대학(Peradeniya University)에 보관되어 있다. 소마다사는 사원들로부터 받은 수많은 목록들을 지역별로 재구성했는데, 이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¹⁶⁾

지역	필사본 목록	필사본 수
서부	173	5311
중부	127	5345
남부	431	28306
북부	-	-
동부	-	-
북서부	55	1369
북중부	15	691
Uva 지역	35	1500
Sabaragamuwa 지역	77	1777
Total Mss. lists 913	Total Mss. 44329	

소마다사는 이렇게 수집된 필사본들을 지역별로 분류한 후 번호를 붙여 색인 작업을 했다. 소마다사 목록 제1권에 언급된 Dpv 필사본은 총 10개이며 그 색인번호와 지역은 아래와 같다.¹⁷⁾

16) Somadasa(1959) p.VI.

〈번호: 사원이름, 마을이름, 도시이름〉

- 352: Paduma Gambārāmaya, Paraliya, Thelwatta
364: Śikṣālankāra Pirivena, Randonbe, Ambalgoda
365: Śailabimbārāmaya, Dondanduwa, Galle
399: Srī Vijāyārāmaya, Kubalwalla, Galle
435: Yatagala Rajamahavihāraya (Hetthawala Pirivena), Unawatuna
437: Ranwelle Vihāraya, Kathluwa, Ahangama
521: Sudharmārama Purāna Piriven Pothgul Viharāya, Nadugala, Matara
577: Siri Sunandārāmaya, Pimburawatha, Paraduwa, A Igiriya, Thelijawila
595: Chulānkāra Vihāraya, Paramulla, Matara
651: Athuladarshanārāmaya, Kapugampatha, Weerakatiya

그러나 저자가 위의 사원들에 직접 확인해본 결과 현재 남아있는 필사본은 365와 435 뿐이었다. 나머지 Dpv 필사본들은 목록집 출판 이후 소실되었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 혹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1964년에 출판된 두 번째 목록집은 스리랑카 총 16개 지역의 674개 사원들로부터 수집한 3,222개의 필사본 정보를 정리하고 있다. 목록집의 구성방식은 1권과 동일하며 마찬가지로 필사본을 소장하고 있는 사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나열되어 있다.¹⁸⁾

제2권에 수록된 Dpv 필사본의 보관 장소는 아래와 같으며,¹⁹⁾ 이들은 모두 현재 열람 가능한 상태이다.

17) Somadasa(1959) pp.130-140.

18) Somadasa(1964) pp.87-102.

19) Somadasa(1964) p.40.

512: Vidyālaṃkāra Pirivena, Kelaniya, 스리랑카 서부

665: Sri Saddharmaguptha Pirivena, Dombawala, Udug
ampola

제3권은 대영박물관(British Museum)에 보관되어 있는 4,000개의 스리랑카 필사본들에 대한 서지사항들을 다루고 있다. 이들에 대한 간략한 정보는 대영박물관이 출판한 7권의 목록집을 통해 서술되어있다.²⁰⁾ 소마다사는 스리랑카 자국민들을 위해 대영박물관에 소장되어 외부인이 열람하기 힘든 4,000개의 필사본들에 대한 정보를 집대성하여 자신의 세 번째 목록집을 완성했다. 이 세 번째 목록집에도 Dpv 필사본이 한 개 포함되어 있으나 제목과 페이지, 그리고 박물관 고유번호 등 간략한 정보만이 언급되어 있다.²¹⁾

2. Colophon: Manuscript no.435; 512; 665

소마다사의 목록에서 확인했던 Dpv 필사본들 중 저자가 열람할 수 있었던 것은 총 4개, 즉 365번, 435번, 512번, 665번이다. (코로나의 여파로

20) (1) Catalogue of the Sinhalese manuscripts in the British museum by Don Martino de Silva Wickremasinghe, printed by the order of Trustees, British Museum; (2) List of Pali, Sinhalese, Sanskrit, and other Mss. formerly in the possession of Hugh Nevill, hand written copy, in 2 volumes. British Museum Student's Reading Room; (3) Classed Inventory (Catalogue of Palm leaf Manuscript Manuscripts in the Oriental Reading Room of the British Museum, classified by Language; (4) Catalog of Letters and Text books, etc., arranged by accession numbers in chronological order received by the Oriental Section of the British Museum; (5) Descriptive Catalog of the Pāli Palm leaf Manuscript (Typed) in the Oriental Reading Room of the British Museum; (6) Descriptive Catalogue of Hugh Nevill Mss. Prose. Hand Writing copy (Vol.i, Vol.ii, Vol iii); (7) Catalogue of the Ballads of the Hugh Nevill collection (Vol.i, Vol.ii, Vol iii).

21) Somadasa(1987) p.140.

대영박물관 자료열람이 제한되어 목록집 제3권에 수록된 대영박물관 소장본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들 중 365번을 제외한 3개의 필사본들은 필사작업과 관련된 흥미로운 정보를 담고 있는 종결부 서사(Colophon, 이하 콜로폰)를 포함하고 있다. (365번 필사본은 후반부 페이지들이 훼손되어 확인할 수 없었고, 앞서 살펴본 콜롬보 국립박물관 도서관 필사본들은 모두 콜로폰이 생략되어 있다.) 소마다사 목록집에 포함된 필사본의 콜로폰들은 탈팻 전통의 특징과 함께 Dpv 제작과 관련된 세부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다.²²⁾

1) Manuscript no.435 (38th Fo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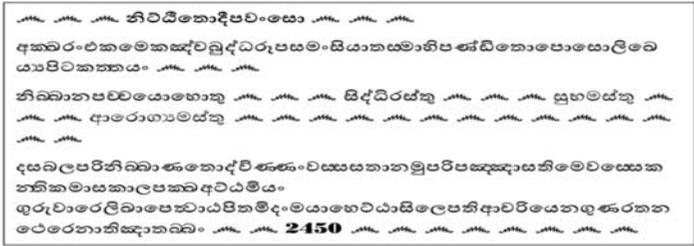
435번은 우나와뚜나(Unawatuna)라는 곳에 있는 야따갈라 라자마하위 하라(Yatagala Rajamahavihāraya)라는 사원에 소장되어 있는 필사본이다. 마지막 탈팻인 38번째 폴리오 첫 짜줄 중간부터 콜로폰이 시작된다.



그 내용을 확대해보면 다음과 같은 싱할리 문자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뱀 모양의 독특한 표기법이다. 이는 쿤달리(kundali)라 불리는 스리랑카 탈팻 전통만의 고유한 기호로서, 게송이나 문장 끝에서 마침표 역할을 하기도 하고, 필사본 시작과 끝 부분을 표기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쿤달리는 한 문단의 끝에는 2-3개, 한 문장의 끝에는 1개, 하나의 주제를 마감하는 부분에는 3개, 반

22) 이러한 콜로폰은 소마다사 목록에 속한 필사본들만의 특징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패엽경 마지막 탈팻에는 짧은 콜로폰이 삽입되어 있고, 여기에는 필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다. Silva(1938) p.XXI.



복구에서는 앞뒤로 2개씩 표기된다.²³⁾ 그러나 Dpv에서는 이러한 규칙이 무시되고 있으며, 불규칙적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짐작컨대, 필사자의 취향이나 필사 습관에 따라 자유롭게 표기했던 것 같다.

435번의 콜로폰을 로마나이즈하면 아래와 같다.

niṭṭhito dipavaṃso. akkharaṃ ekamekaṃ ca buddharūpa
 samaṃ siyā. tasmā hi paṇḍito poso lekheyya piṭakattayaṃ.
 nibbānapaccayo hotu. siddhir astu. subham astu. ārogyam
 astu. dasabalaparinibbānato dviṇṇaṃ *vassasatānam upar
 ipaññāsatiṃ vasse kattikamāsa-kālapakkha-aṭṭha-miyaṃ
 guruvāre likhāpetvā ṭhapitam idaṃ mayā heṭṭhā silepati-ac
 ariyena Gunaratanatherenā ti ṇātappaṃ. 2450.

이 콜로폰은 의미상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주제로 분류된다.

(a) 본 텍스트 종결부
 niṭṭhito dipavaṃso.
 “『디빠왕사』가 끝났다.”

(b) 필사의 공덕
 akkharaṃ ekamekaṃ ca buddharūpasamaṃ siya. tasmā

23) Indika(2016) p.15.

hi paṇḍito poso lekheyya piṭakattayaṃ. nibbānapaccayo ho tu. siddhir astu. subham astu. ārogyam astu.

“글자 하나하나가 부처님과도 같다. 그러므로 현명한 자가 삼장을 필사해야만 한다. 열반의 인연이 있기를! 성취가 있기를! 상서로움이 있기를! 건강하기를!”

(c) 필사작업 완료일 및 필사자 정보

dasabalaparinibbānato dviṇṇaṃ *vassasatānam uparipaññāsatiṃ vasse kantikamāsa-kālapakkha-aṭṭha-miyaṃ gu ruvāre likhāpetvā ṭhapitam idaṃ mayā heṭṭhā sīlepati acariyena Gunaratana therenā ti ñātabbāṃ. 2450.

“다음과 같이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완전한 열반에 드신 후 * 2,000년하고 500년이 조금 덜 지난 우기 10월 보름 8일째 되는 목요일, 계를 구족한 스승인 나 구나라파나 장로는 필사 부탁을 받고 이 [탈팻]을 안치한다. [불기] 2450년.”

먼저 “『디빠왕사』가 끝났다”라는 첫 번째 부분은 모든 Dpv 필사본들의 마지막 페이지에서도 발견된다. 이 문구는 말 그대로 텍스트의 본 내용이 모두 종결되었음을 의미하는 일종의 마침표역할을 한다. 현대 방식으로 출판된 빠알리 불전에도 ‘nitṭhito 경전명’은 대부분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탈팻 전통 속 필사방식의 흔적이기도 하다.

두 번째 부분은 탈팻 전통이 지닌 종교적 가치를 보여준다. 탈팻에 새겨진 모든 글자들은 부처님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것이기에, 필사는 단순한 복사작업이 아닌 그 자체로 성스러운 행위이며 깨달음을 향한 수행이다. 그리고 이 작업을 마무리하며 덕담과 발원이 이어진다. 이는 필사작업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탈팻 전통에서 거듭 발견되는 정형구이다.

세 번째 부분은 필사작업이 완료된 날짜와 필사자의 정보가 담겨 있는데, 다소 낮은 지역특색을 지닌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먼저 첫 번째 문구 dasabalaparinibbānato dviṇṇaṃ *vassasatānam uparipaññāsatiṃ

는 붓다의 열반으로부터 ‘250년이 조금 못 미치는 시점(vassasatānam uparipaññāsatiṃ)’을 의미한다. 그러나 콜로폰 말미에 당시 연도를 불기 2450년이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vassasatānam은 명백한 필사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맥상 이 단어는 vassasahassam으로 수정되어 ‘2,500년이 조금 못 미치는 시기’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문구인 vasse kattikamāsa-kālapakkha-aṭṭha-miyaṃ guruvāre는 필사작업이 완료된 정확한 날짜를 서술하고 있다. kattika(Sk. kṛtika)는 스리랑카 기준 10월을 지칭하며, kālapakkha는 달이 기울기 시작하는 보름 이후를 뜻하고, guruvāra는 목요일을 의미한다.

세 번째 문구는 필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나열되고 있다. likhāpetvā는 사역형 절대격으로 이 필사작업이 타인에 의해 의뢰된 것임을 보여준다. ṭhapitam idaṃ mayā는 탈팃전통이 현대적 관점에서의 출판과는 다른 의미였음을 보여준다. 즉, 완성된 궤엽경은 마치 불상과도 같이 사원 혹은 그에 필적한 곳에 안치되는 것임을 ṭhapeti라는 동사로 표현하고 있다.

hetthā는 의미상 ‘아래(below)’를 뜻한다. 그러나 위에서 아래로 넘기는 탈팃 전통의 궤엽경 읽기방식을 감안한다면, 이는 현대적인 의미에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as above)’을 뜻한다. 따라서 이 단어는 앞서 언급한 날짜를 다시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silepati-acariyena Gunaratanatherena는 maya와 같은 도구격(ins.)으로서 필사자 자신을 묘사하는 부분이다. silepati-acariya는 계를 구축한 스승으로서 스리랑카 불교전통에서 승려를 지칭하는 일종의 정형구 혹은 타이틀이다. 빠알리 문헌 전통 특히 주석서(Pāli-aṭṭhakathā) 전통의 경우, 저자 자신을 숨기고 의뢰인을 밝히는 것과 달리 탈팃 전통은 필사자 자신의 이름을 화려한 수식어구로 명시하고 있다.

끝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필사된 2450이란, 앞서 이미 언급했듯, 불기 2450년을 의미한다. 다른 필사본의 경우 buddhavassa라는 단어를 추가

hi pandito poso lekheyya piṭkattayam. nibbānapaccayo hotu. siddhir astu.

“글자 하나하나가 부처님과도 같다. 그러므로 현명한 자가 삼장을 필사해야만 한다. 열반의 인연이 있기를! 성취가 있기를!”

(c) 필사작업 완료일 및 필사자 정보
[생략]

앞서 언급했듯, 435번과 달리 512번은 종결부와 필사의 공덕만을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필사공덕 역시 435번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서술되어 있다. 512번의 콜로폰은 형식적인 것일 뿐, 사실상 필사본 제작과 관련된 정보는 없다.

3) Manuscript no.665 (gau Foll)



niṭṭhito dipavaṃso. lekhāpitam idaṃ mayā dhammakitti pādena buddhavassato 2445.

(a) 본 텍스트 종결부
niṭṭhito dipavaṃso.
“『디빠왕사』가 끝났다.”

(b) 필사의 공덕

[생략]

(c) 필사작업 완료일 및 필사자 정보

lekhāpitam idaṃ mayā Dhammakittipādena buddhavass
ato 2445.

“나 존경받는 담마껏띠빠다가 이것을 요청받아 필사했다. 불기 2
445년.”

665번 콜로폰은 두 번째 공덕 부분과 세 번째 구체적인 제작완료일이 생략되었다. 대신 화려한 수식어로 필사자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 필사자의 이름인 Dhammakittipāda에서 pāda는 존경의 의미를 나타낸다. 스리랑카에서는 덕이 높은 승려의 이름 앞 혹은 뒤에 svānipāda 혹은 puṅgavapāda를 붙여 존경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665번 콜로폰에서는 이를 축약하여 pāda만을 사용했다. 또한 불기를 나타내는 buddhavassa가 아라비아 숫자 2445와 함께 필사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lekhāpita라는 사역형 과거분사가 사용되어 의뢰인에 의해 시작된 필사작업이 담마껏띠 스님에 의해 1901년에 완료되었음을 함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IV. 결론

이상 Dpv를 사례로 스리랑카 탈팻 전통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논자는 먼저 방대한 패엽경 필사본들의 정보가 담겨있는 대표적인 목록집 두 권을 검토하여 Dpv의 정보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열람 가능한 Dpv 필사본들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목록집 카탈로그를 해독하는 방법과 구조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필사본 종결부에 언급된 콜로

폰을 분석하여 탈팻 전통의 특징과 가치를 살펴보았다. 또한 Dpv 필사본들을 바탕으로 그들의 특징과 구조를 밝힘으로써 향후 진행될 Dpv 연구를 위한 시론을 제공했다.

본 논문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스리랑카에서 제작된 패엽경을 서술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목록집은 실바(W. A. De Silva)의 콜롬보 국립박물관 도서관 소장본 목록집과 소마다사(K.D. Somadasa)의 스리랑카 패엽경 목록집이다. 특히 실바 목록집의 카탈로그는 다양한 약어표기를 바탕으로 필사본의 물질적인 정보를 상세히 제공해주고 있었다. 논자는 이 두 목록집의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열람 가능한 7개의 Dpv 필사본을 확보하여 콜로폰을 분석함으로써 탈팻 전통의 구체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콜로폰이 역설하고 있는 필사의 공덕, 그리고 작업완료 및 필사자의 정보를 서술한 부분을 통해 탈팻 전통의 종교적 원동력과 가치를 확인함은 물론, 이 전통이 당시 포함하고 있던 다양한 지역적 특색을 지닌 용어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면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Dpv 필사본들의 모든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논자는 향후 진행될 후속 연구를 통해 미처 발견하지 못한 탈팻 전통의 또 다른 측면들을 지속적으로 밝혀나갈 것이며, 동시에 올덴베르그의 교정본에서는 볼 수 없었던 Dpv의 새로운 텍스트적 가능성과 가치를 확인할 것이다.

논자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비단 Dpv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빠알리 문헌들이 여전히 열려있는 텍스트임을 역설하고자 한다. 콜로폰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듯, 탈팻 전통은 단순한 경전 복사작업이 아니었다. 이는 궁극의 종교적 가치를 지닌 성스러운 행위이자 깨달음을 향한 수행이었다. 부처님의 원음으로 신앙되는 초기경전들 이면에는 여전히 검토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필사본들이 존재하기에, 탈팻 전통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는 초기불교문헌들에 대한 입체적이고 넓은 시야를 제공해줄 것이며, 새로운 해석지평과 종교적 체험을 가능케 해 줄 것이다.

참고문헌

1. 원전류

Dpv : *Dīpavaṃsa*, ed. and trans. by Hermann Oldenberg,
Oxford: Pali Text Society, 1879.

〈Colombo National Museum Library Catalog〉

Manuscript no.1849

Manuscript no.1850

Manuscript no.1851

〈K.D. Somadasa Catalog〉

Manuscript no.365

Manuscript no.435

Manuscript no.512

Manuscript no.665

2. 사전류

Cone : A Dictionary of Pāli I & II & III. Bristol: Pāli Text
Society. (2001 & 2010 & 2020)

MWD : Monier Williams Sanskrit Dictionary
<https://sanskritdictionary.com/vara/201952/1> (최종
검색: 2023년 1월 19일)

PED : Pāli English Dictionary (Pāli Text Society)
<https://dictionary.sutta.org/> (최종검색: 2023년 1월 19일)

水野弘元 : 『パーリ語辭典』 <https://dictionary.sutta.org/> / (최종검
색: 2023년 1월 19일)

3. 단행본 및 논문

Alwis, James De(1870). *A Descriptive Catalogue of Sanskrit, Pali and Sinhalese literary works in Ceylon*, Colombo: William Skeen Government Printer.

Codrington, H. W.(1941). *Reviewed Work: Catalogue of the Palm Leaf Manuscripts in the Library of the Colombo Museum, Vol.I by W. A. de Silva*, Cambridge University Press.

Documentation Services Division(2007). *Bibliography on palm leaf Manuscript in Sri Lanka*, Colombo: National Library and Documentation Centre.

Fernando, P.E.E.(1982). *The Sri Lanka Journal of Humanities*, Vol. 8, No. 1&2.

Fernando, P.E.E.(1982). 'A Note on Three Old Sinhalese Palm Leaf manuscripts', *The Sri Lanka. Journal of the Humanities* 8(1-2).

Gunawaradana, Simon. F(1894). *Catalogue of the Colombo Museum Library list of Pali, Sinhalese and Sanskrit Manuscripts*, Colombo: Acting Government Printer.

Hettige, Nilantha Indika (2010). *An Annotated Bibliography of Palm leaf manuscripts in Library of the Colombo National Museum*, Colombo: A Publication of the department of national Museums of Sri Lanka.

Indika, T. H. Nilantha (2016). *An Analytical Study of the*

Puskola Book Manuscripts Representing the Theravada Buddhist Tradition in the Colombo National Museum,
Doctoral Thesis, University of Kelaniya.

Lanerolle, Julius De(1938). 'A Catalogue of Palm leaf Manuscript', *The Journal of the Ceylon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of Great Britain & Ireland* Vol.34, No.91.

Rhys Davids, T.W(1882). 'List of Mss. in the Colombo Museum, By Louis de Zoysa', *Journal of the Pali Text Society* 1: 46-58, London: Pali Text Society.

Silva, W. A. De(1938). *Catalogue of the Palm Leaf Manuscripts in the Library of the Colombo Museum, Vol. I*, Colombo: Ceylon Government press.

Somadasa, K. D.

1959 *Palm leaf Manuscripts catalog of Sri Lanka - First Volume*, Colombo: A Publication of the Department of Culture.

1964 *Palm leaf Manuscripts catalog of Sri Lanka - Second Volume*, Colombo: A Publication of the Department of Culture.

1987 *Palm leaf Manuscripts catalog of Sri Lanka - (Catalogue of Sri Lankan Puskola Books of the British Museum) - Third Volume*, Colombo: A Publication of the Department of Culture.

Zoysa, Louis De(1885). *Catalogue of Pāli, Sinhalese and Sanskrit manuscripts in the temple libraries of Ceylon*, Colombo: William Skeen Government Printer.

라모프, 에피엔느(2008). 호진 번역, 『인도불교사1』, 서울: 시공사.

〈Abstract〉

***Dīpavaṃsa* Manuscripts within the Talpat Tradition (1)**

Authors: Rev Pagoda Saranasheeha (PhD Candidate)

Corresponding Author: Kyungrae Kim (Assistant Professor)

/ Department of Buddhist Studies, Dongguk Univ. Seoul

The tradition of Palm-leaf manuscript had already been established since BCE. within the Buddhist countries. This tradition, in Sri Lanka, has been inherited and developed under the name of Talpat, which means the leaves of the Palm-leaf manuscript. The manuscripts have been produced and transmitted over the centuries at the Colombo National Museum Library or the temples across Sri Lankan provinces, some of which have been lost or leaked abroad.

This article introduces the Sri Lankan Talpat tradition, which has not been dealt with in Korean academia so far. It scrutinizes the method of catalog and the available manuscripts by examining the representative Manuscript Catalogs. Further, it analyzes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Palm leaf manuscript using specific text available as a sample. The *Dīpavaṃsa*, which is the oldest historical text among the extant Buddhist source, is the text as this case study. In 1879, Hermann Oldenberg published the critical edition of the text based on 11 manuscripts transcribed in the Burmese and Sinhalese script. Since then, however, there has been no further

critical comparative research on a number of additional manuscripts that Oldenberg could not review. In response, the article analyzes the seven available manuscripts of the Colombo National Museum Library Catalog No. 1849, 1850, 1851, and K.D. Somadasa Catalog No. 365, 435, 512 and 665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alpat tradition in Sri Lanka.

* Keywords

Talpat, Dīpavaṃsa, Manuscript Catalog, Palm-leaf Manuscript, Colophon

: 2023. 01. 19.

: 2023. 03. 14. ~ 2023. 03. 22.

: 2023. 03. 29.